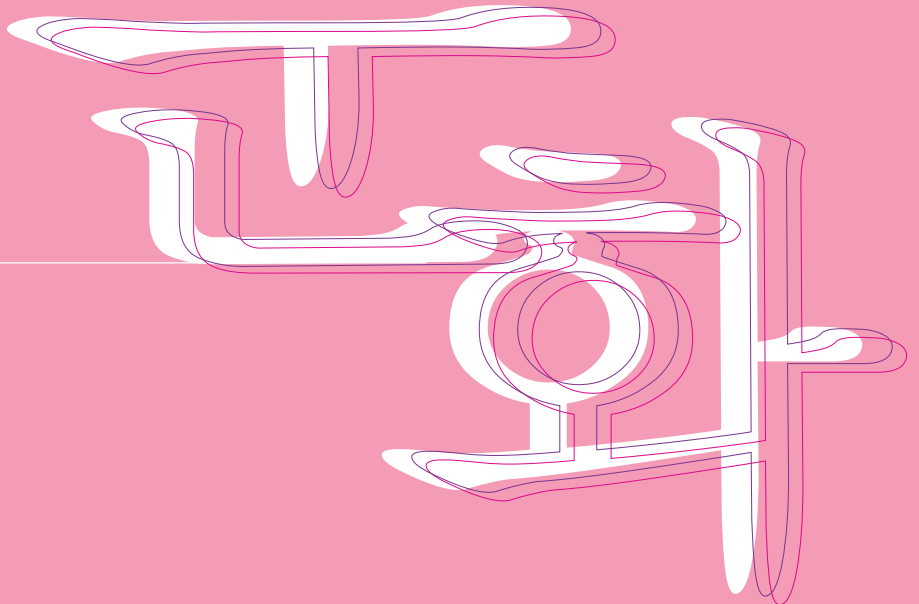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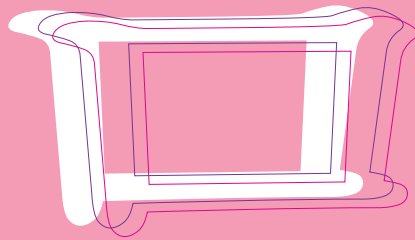




2011.01 Vol. 222 January



해 맞 이 하 려 가 자

이곳은 성(城)의 남쪽
동해나 백두(白頭)는 멀다
먼 곳에서 뜨는 해는
이곳까지 어찌 오나
온조가
꿈꾸던 나라,
산성 길을 돌아오나

호란(胡亂) 지킨 병자년
남한산 성벽 산길
상궐과 하궐 사이
역사로다, 역사로다
오백 년
버텨 온 나무
오 만 풍상 넘겼다

태평성대 왕조의 성
천 년 성문(城門) 다시 열자
뎡그렁 큰 종소리
올려 보는 인조 임금
넓혀 갈
아침의 나라
세상 품을 너른 땅

뜻 다른 이별 앞에
응어리 진 저 하늘
아직은 넘기지 못 할
아픈 가시 남아 있어
불려 본
반도(半島) 아리랑
목울대 걸린 아리랑

아침 해, 이곳까지
시름 접고 솟아나라
불멸의 그 돌레로
무량(無量)의 그 깊이로
신묘년(辛卯年)
바라 볼 희망
해맞이 하려 가자

수천 수만 새떼는
구렁 없이 하늘 날고
저리 붉은 둥근 해
소리 없이 솟구친다.
새 날은
좋은 새 날은
파열음이 없어라.

Contents

2011. 01 Vol. 222 January

02 연합회 소식 I	2011 신묘년 새해인사말
06 연합회 소식 II	다시 보는 독도
08 한지붕 한술밥	인천연수문화원
10 박물관 기행	경기도박물관 요령고대문물전
12 세계 속의 우리문화	성곽 문화의 꽃, 화성(華城)
14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장릉속의 춘화(春畵)가 세상에 나오다
18 안식의 전환_한류	이제는 고급 한류로 블루오션 개척을
22	한옥의 세계화와 고택문화자원의 활용
26	한국음식이 세계화하려면_한식과 막걸리 소고
29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31	우리 문화 소식
32	원장 동정



등록번호 서울로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6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d.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 · 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관호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영(주광역시 지회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삼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832-7924 | 인쇄 태양 세인파 02269-2111
원고는 편집부의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선택사항)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 를 보내드리거나 조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2011 신묘년 새해인사말



바쁘고 바쁜 2011년 새해를 맞아 전해도
자랑스러운 신묘년 새해가 되겠습니다.
많은 노력과 기대에 첫눈 첫시작을
맞았습시다.
올해에 첫가득을 가졌던 이념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더 행복해 지시기를
기원 합니다.

작년 한해 전국문화원연합회에도 많은 발전한 많은 일이 있었
습니다. 연합회 교육 사업은 비롯해 어르신들과 학교, 지역이
함께 문화 발전 확산이 알상선 활동이 대문화사업, 이주민문화
아해증진에 위한 다문화 사업과 특히 지난 2011년부터 5년
간 진행된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등을 차질없이 진행
하였습니다. 총 208개 문화원이 아해와 문화사업을 지원
하였고 비예산사업으로 축제사업등의 참여 전국동문계연
대회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역에서 추진하시는 많은 문화 사업과 노력이 결실되
실수시 많히기를 기대해 합니다.

지역 곳곳이 문화가 손길로 품고있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화에도 열심히 하
겠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장 崔 鍾 秀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은평문화원장 박인호

신묘년 새해!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 임·회원 직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봉사로 지역문화 창달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합니다. 가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경기도지회장,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문화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그 새로운 상상력은 역사와 전통 속에 면면히 숨어있는 인간의 삶과 경험에 축적되어 있는 것에 의해 비로소 발현됩니다. 지역문화에 생명을 불어넣는 새로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여수문화원장 조재인

새해에는 더 새롭고 웅대한 포부로 하시는 일마다 괄목할 발전이 있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경남도지회장, 함안문화원장 조훈래

새해에 뜨는 해는 귀하의 큰 뜻입니다. 새해에 부는 바람은 귀하의 힘찬 기운입니다. 온 세상에 큰 뜻을 비추고 쉽 없는 기운으로 힘차게 도전하는 새해는 귀하의 한 해가 되십시오.

서울시지회장, 동대문문화원장 김영섭

지난해 백호의 울음처럼 시끄러운 한 해였다면 분명 금년 한 해는 조용한 토끼처럼 아무런 잡음 없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경충경충 뛰어 가는 도약과 발전의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가족 모두 아프지 않고 풍족한 한 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산광역시지회장 이규상

신묘년 새해의 해가 떴습니다. 문화에 대한 희망으

로 전국 문화원 가족의 기대도 함께 떠오릅니다. 모두 건강하고 문화의 꽃을 만방에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지회장, 대구중구문화원장 김덕영

희망과 꿈을 그리며 신묘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위하여 문화인의 역량을 한데 모아 삶의 깊은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하도록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져 풍요를 즐길 수 있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 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지회장, 연수문화원장 김원욱

시끄러운 소리로 울지도 않으며 지혜와 다산이 상징인 토끼처럼 올해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알차게 번성하는 문화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광주광역시지회장 김 종

우리 모두는 첫 입맞춤 같은 짜릿한 설레임, 일 년을 하루같이 가슴 가득 웃음 옷자. 북풍을 만나면 눈꽃이 피는 북, 남풍을 만나면 보슬비 내리는 북, 순백의 토끼 같은 예쁜 복을 짓는 건강한 한해를 살자.

대전광역시지회장, 대전서구문화원장 박세규

2011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민족의 힘이 바로 문화와 예술의 창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계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문화 발전의 사명을 통감합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세계화 지향의 영향에 따른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도입으로 우리 고유문화의식마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문화”가 역사적 가치를 되살림은 물론 지역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종합문화예술지로서 거듭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울산광역시지회장, 울산남구문화원장 윤성태

신묘년 새해에는 문화가족 모두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신문화 함양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지회장 이대근

전세계 방방곡곡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반만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가 이제 세계 인류 문명의 중심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청북도지회장, 청주문화원장 장현석

존경하는 전국의 문화원가족여러분! 2011년 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문화원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지역문화를 통한 한국문화의 위상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새날의 찬란함과 열정이 함께하여 희망이 가득하고 풍성한 결실이 어우러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지회장, 당진문화원장 정정희

새해를 맞아 힘차게 떠오르는 해는 우리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문화로 희망을 전달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희망찬 새해 힘찬 출발하세요!

전라북도지회장, 군산문화원장 이복웅

지역의 향토문화 역사를 보존,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안녕과 역동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남도지회장, 곡성문화원장 김학근

2010년 경인년은 다사다난의 한 해였다면, 신묘년은 암울한 상황에서 재기와 희망이 싹트고 피 많은 토끼가 위험을 대비해 굴(窟)을 3개나 준비한다는 이야

기처럼 보다 성숙된 국민화합과 사회 안정을 통하여 문화가 꽃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상북도지회장, 영주문화원장 박찬극

신묘년 새해에도 대한민국 문화가 융성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온고지신(溫故知新) 하는 마음으로 지역마다 전통문화가 새롭게 도약할 것을 축원합니다.

제주도지회장 한공익

지난 경인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건네는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문화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바라오며 천지간이 문화의 향기로 가득 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연제문화원장 김영웅

신묘년 새해 우리문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 되고 희망과 꿈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다면, 올 한해는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한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은 반드시 참조하여 잘된 것은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여 앞날에 밑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은 서로 칭찬하고 반영하여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하여 지난 해 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성숙한 의식의 개개인이 될 때 우리 나라는 문화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문화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한국인 감동의 문화 사랑이 모여, 세상 사는 기쁨의 시간 추를 이끌어가는 전국문화 가족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산바람과 물빛도 함께 춤추는 세상, 어서 어서 노래하는 “문화의 큰 울림”이 동해-서해-남해

로 퍼져 나가기를—.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영동문화원장 정원용

새해의 첫 날이 밝았습니다. 문화로 신바람나는 2011년이 되기를 고대해봅니다. 문화원의 저력을 믿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익산문화원장 김복현

문화가 꽃피는 201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 나라들의 역사문화를 보면 문화가 살아있는 국가는 흥하였고 문화가 성하지 못한 나라는 망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국가의 골격이라고 하며 문화는 정신적 골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화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의 모습이 나약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입증해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1년, 토끼의 총명함처럼 문화의 꽃이 피는 큰 역할을 하는 한 해가 되어 우리나라가 더욱 융성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을 해 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포항문화원장 권창호

토끼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문화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군위문화원장 박수호

판소리 '수궁가'에는 토끼가 지혜를 발휘해서 용궁을 탈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토끼해를 맞이해서 문화가족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문화가족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마산문화원장 임영주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토삼굴(狡兔三窟)이라는 고사성어를 되새겨 봅니다. 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씩이나 파놓고 위기에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문화가족 모두 토끼와 같은 지혜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만사형통하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감사, 평창문화원장 고창식

새로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사람 중에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와서 부딪쳐 죽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수주대토(守株待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감사, 나주문화원장 정경진

올 한 해도 힘차게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의 꿈을 더욱 원대하게 꾸어봅니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 모두 파이팅, 문화인들 파이팅.



다시 보는 독도

국가의 안녕과 평화의 기원



지난 2010년 11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울릉도 및 독도 일원에서 독도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한국 문화원연합회(회장 최종수)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문화원장, 향토사가, 연구자, 공연자 등 많은 문화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남북한간의 대결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소말리아 등 국제적 긴장관계가 전개되는 현실에서 다시 한번 독도를 통해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해 본다.



얼과 역사가 살아 있는 인천연수문화원

인천 연수구는 바다와 닿아있는 어촌이었다.

BC18년경 비류가 미추홀국을 세웠던

아주 오래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수구이지만

오늘날의 연수구의 모습은 뿔을 메우고 조성된 신도시이다.

또한 인천공항 건설 이후 국제물류단지 조성,

2014년 아시안게임의 유치 등 역동적인 도시로

끊임없이 변모하는 인천 속의 연수구는

공항과 항구라는 세계로 향한 관문을 곁에 두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바다와 닿아있는 어촌이었다. BC18년 경 비류가 미추홀국을 세웠던 아주 오래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수구이지만 오늘날의 연수구의 모습은 뿔을 메우고 조성된 신도시이다.

또한 인천공항 건설 이후 국제물류단지 조성, 2014년 아시안게임의 유치 등 역동적인 도시로 끊임없이 변모하는 인천 속의 연수구는 공항과 항구라는 세계로 향한 관문을 곁에 두고 있다.

연수구의 280만 주민들 대부분은 외지에서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이나 사회 속에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이곳으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연수구민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어





야 하며 또한 구민 대화합을 추구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와 진정한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과 양식을 창출해 내고자 한다.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삶의 풍요로움을 창조해 가기 위해 연수문화원(2001년 10월 21일에 설립)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가고 노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에 연수문화원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여러 교육사업과 문화행사를 하였다.

평생교육사업으로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연령대별 프로그램 200여개 강좌를 개설하여 3000여명의 수강생이 문화학교에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복지센터 등 지역의 문화적 혜택이 적은 계층을 방문하여 연수문화원 10개 동아리 팀이 찾아가는 문화강좌, 위문공연을 지속적으로 70회 이상 개최하였다.

또한 연수구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학습동아리(연수문화원자체동아리), 평생학습전문지도자들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을 추진하

였다. 향토사업으로는 인천의 숨은 명인(名人)을 찾아서, 지도가 있는 시(詩) 속의 인천, 연수구 안내 등의 책자를 발간하였고, 연수문화 해설사 양성과정을 연중 실시하였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한국시의국어낭송회, 인천미술은행과 함께하는 인천미술전이 있었으며, 문화예술 교육으로는 문화예술교육매개인력아카데미, 구민을 위한 예술아카데미 등 85회 이상을 주최하였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예술 프로그램, 한국어배우기, 문화여행 등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실시하였으며, 6쌍의 합동전통혼례식도 치렀다.

또 한편 전시실에서는 난, 서예, 그림 등 연중 21회 이상 전시를 하였으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체험 열린 미술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하였다.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따라잡기를 원하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꾀하여 정서적 안정감,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문화원의 의무이고 책임이라 여긴다.

그러기에 조건이 허락되면 더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지만, 21세기형 문화예술의 나눔터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연수문화원은 현재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내에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독원사가 생겨 양질의 예술문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遼寧古代文物展

ANCIENT ARTIFACTS FROM LIAONING

경기도박물관 요령고대문물전

경기도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요령고대문물전을 소개한다.

중국 요령성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청동기문화가

동질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위치한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지난 2010년 11월 25일부터 우리 민족의 청동기 문화의 기원과 관련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중국 요녕 고대 문물전이 그것인 데, 2011년 2월 27일까지 전시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들을 중국 심양 12대영자 유적에서 출토된 동경(銅鏡) 등 149건 316점.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의 기원지로 알려진 요령 지역 고대 유물이 국내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다.

요령성박물관,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심양시문물고고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엄선된 요령지역의 청동기 유물들이다.

요령고대문물 특별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부 요령 초기 청동기문화의 탄생과 성장, 제2부 요령 후기청동기 문화의 출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제1부 초기 청동기문화는 지역별로 나누어 요서지역, 요북지역, 요동반도, 그리고 중원지역으로 전시를 구성하였고, 제2부는 초기청동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전개

와 변동, 전국시대 연문화의 동진과 세형동검의 등장에 관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 전시회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중국의 중원이나 북방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요령의 청동기문화가 한반도 뿐 아니라 일본 열도에까지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 옛날, 동북아지역의 청동기문화가 동질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1. 하가점하층문화인 수천유적 출토 채도
기원전 2000년기의 이 채도는 인더스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되는 채도와 양상이 유사하다.
2. 심양 정가외자 6512호 묘 출토 벽옥제 목걸이 장신구
이 전시회에서 중요한 유물 중의 하나는 벽옥으로 만든 파란 구슬 목걸이 장신구이다. 보석으로 만든 이 장신구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3. 심양 정가외자 6512호 묘 출토 거울
동경은 제사장이 쓰는 도구인 의기 중의 하나로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다.
4. 마창구 유적출토 종원계 청동술
이 청동술은 중원에서 출토되는 도철문술과 유사하며 문양에는 새가 그려져 있고 한국에서 보기힘든 유물이다.



성곽 문화의 꽃, 화성(華城)

경기도 수원시의 도시에 있는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도 올 해로 14년을 맞는다. 그간 많은 이들이 화성을 찾았고 화성의 면면에 감동하였으며 오늘날 그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과 선정 이유, 그리고 깃든 정신의 일면을 소개하기로 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 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수원화성은 1794년 1월 첫 삽을 뜨고 1796년 9월 완공을 보기에 이른다. 동서양 성곽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계획되고 설계된 성곽이 축성된 것이었다. 1801년에는 화성의 축성계획, 제도, 법식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시공기계,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된 〈화성성역의궤〉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화성'은 제 이름을 잃고 '수원성'으로 불리기 시작하여 1997년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바로 잡은 이가 고인이 되신 서지학자이며 최초의 독도박물관장을 역임하신 이

종학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이는 바로 대한민국 수원시를 세계화장실문화운동의 발상지로 만드신 'MR, Toiler' 고(故) 심재덕 전 수원시장님이시다. 현재 수원화성의 모습은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하여 1975~1979년까지 보수와 복원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민선 1,2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복원사업이 추진된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수원시에서는 완전한 복원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성의 둘레는 약 6킬로미터(5,744m)로 동쪽지형은 평지를 이루고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 있는 평산성의 형태이다. 축성 당시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 남문인 팔달문, 동문인 창룡문, 서문인 화서문과 북수문, 남수문, 서장대, 동장대, 서노대, 동북노대, 서북공심돈, 동북공심돈, 남공심돈을 비롯하여 5개의 암문과 4개의 각루, 봉돈, 포루(砲樓)와 포루(鋪樓), 치(稚), 적대(敵臺)를 비롯한 부속시설물을 갖추고 있었다.



제 각각의 모양새와 아름다움,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당시 심사위원들은 성곽의 축성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성역의궤>와 화성의 시설물들이 용도는 같으나 모양이 제각각 특성을 갖고 있는 점들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의 시설물들은 이런 점들을 외관만이 아니라 그 명칭에서도 증명하여준다. 수원시의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수원천(柳川:수원천이란 수원의 하천이라는 명칭이지 고유한 이름은 아니다. 본래의 이름은 버드내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실제 화성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 정조께서도 '유천성(柳川城)'을 쌓으라 명하였다.)에 세워진 북쪽 수문도 화홍문(華虹門)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 서쪽의 장대를 화성장대라 하거나, 동쪽의 장대는 연무대, 동북공심돈의 내부가 소라의 속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소라각, 동북각루의 아름다움에 걸 맞는 방화수류정, 서남각루는 화양루 등으로 불리고 전하여 지는 것은 모두 이러한 정황을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안문은 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이다. 보통 성(城)의 남문을 정문으로 삼으나, 화성은 임금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북문인 장안문이 정문이다. 장안(長安)에서 따온 것으로 이는 당나라 때의 장안성과 같이 화성 또한 융성한 도시가 되라는 정조의 뜻이 담긴 이름이다. 남문인 팔달문(八達門)은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수원화성에 깃든 정신!

약 6킬로미터의 성곽을 축성하는 기간이 채 3년이 되지 않았던 점을 의미 있게 해석하면서 그 이유를 거중기 등 새로운 설비의 이용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지형과 정황을 들어 거중기의 실질적 사용여부가 논란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화성축성에 소요된 기간은 가히 놀랄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외중에 필자는 다음에서 찾고자 한다. 화성 축성 시에는 동원된 백성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였다는 점, 더위에는 척서단이라는 약을 하사하였다는 점, 농번기에는 잠시 성역을 중단하면서 백

성을 배려하였던 점이다. 진정으로 백성을 배려하고자 하였던 애민의 정신이 바로 화성에 깃든 참다운 정신이요 사상이며 이를 통하여 감화되고 감동한 백성들이 공사기일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

한편으로는 축성의 동기와 과정을 지나 축성 후에도 수원, 그리고 화성에는 인륜지 최대의 덕목인 '효'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조께서는 불행하고도 처참한 최후를 맞았던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그리움을 화성 축성과정에서 녹여내었다. 양주 배봉산 자락에 있던 수은묘를 사도세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면서 영우원으로 개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훗날 수원의 화산(현재 화성시)으로 천장하면서 사도세자의 원침을 현릉원으로 칭하고 원행을 행하였던 것이다.

세손시절 정조께서는 <시전>(요아편)의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으니, 하늘을 우리러 통곡을 하여도 다 할 수가 없다."는 구절을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자 하였다 전한다. 보위에 오르신 후에는 현릉원(顯隆園)에 자주 참배를 하시었다. 신하들이 환궁 하실 것을 권하면 "지극한 슬픔이 속에 있으니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느냐" 하시고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를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명일화성회수원, 지지대상우지지(明日華城回首遠, 遲遲臺上又遲遲)"란 글을 지어 화성을 떠나기가 싫음을 읊었다 전한다. 지지(遲遲)란 공자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로 더디고 더디다는 뜻이다. 현릉원을 향하는 행차가 더디다 하시고, 환궁하시는 걸음이 아쉬움으로 더디니 지지(遲遲)였던 것이다.

순조께서는 정조께서 현릉원과 화성에 애착을 갖고 계셨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화령전을 지어 아버지 정조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계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먼 훗날 고종께서는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하면서 현릉원을 능(陵)으로 격상시켜 융릉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애민과 효심을 정신적 뿌리로 두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가히 성곽 문화의 꽃이라 하겠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연구회홈페이지 참조)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장롱속의 춘화(春畵)가 세상에 나온다

장롱 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몰래 꺼내 들여다보던 춘화(春畵)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시아문화 전문박물관인 화정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LUST>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동아시아권 전체를 통틀어 최초로 춘화를 전시하고 학술의 대상으로 삼아 사료로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국내 영화에서도 가끔 춘화가 선보인 적이 있다. <음란서생>이나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에서 춘화에 얹힌 이야기가 등장했고, 특히 조선 후기 3대 풍속화가중의 한 명인 혜원 신윤복의 드



라마틱한 삶을 그린 영화 <미인도>에서는 춘화첩에 묘사된 기녀들의 다양한 체위를 재현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게 본능을 깨우는 그림 춘화가 세기를 뛰어넘어 당당히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4가지 선천적 욕구가 존재한다.

이른바 동물적 본능이다.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욕구인 먹고 잠자고, 배설하는 행위와는 달리 생식행위 즉 성욕은 종족보존을 위한 본능인 동시에 쾌락을 동반한다.

하지만 동서양은 모두 전통사회에 있어서 유교문화

와 기독교 문화라는 뿌리 깊은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 성이 규제되어 왔다.

때문에 전통사회에 있어 성에 대한 공론화 및 공개적 유희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춘화는 이 욕구 중 성욕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화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춘화란 남녀 간의 성애,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남녀의 성 풍속을 그린 춘화가 언제부터 그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오래전부터 그려졌을 것이다.

요즈음이야 사방에 널린게 포르노 사진들이니 굳이 춘화 따위를 그릴 필요가 없어졌지만 사진이 없었던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춘화가 필요하여 은밀하게 그려졌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춘화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그림들의 제목은 대부분 운우도(雲雨圖: 운우는 성교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다)나 건곤일화(乾坤一會: 건곤은 우주의 4괘중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춘투도(春鬪圖), 일소도(一笑圖), 원앙비보(鴛鴦秘譜)등 다양하게 붙여졌었다.

이러한 그림들의 총칭으로 춘화(春花, 春和)또는 춘의(春意)라는 명칭으로 불리워 왔고, 현재는 춘화(春畵)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봄을 의미하는 춘(春)이라는 글자가 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은 봄이라는 계절적 성격, 즉 생명을 소생시키는 생성의 계절이란 의미를 성과 결부시킨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방중술이나 탄트라적 교리들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 상상할 수 없던 향락적 일들이 관대하게 받아들여졌었다는 기록을 문헌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성적문란은 조선시대 와서는 사대부들에게 척결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며 도시가 팽창하

면서 복합적 소비유희 공간으로 기방과 색주 등이 번창하게 되었고 역관을 비롯한 중인이나 서리배 등이 주 고객층이 되면서 춘화역시 기방을 중심문화로 하여 발달했던 유희문화의 하나로 향유 발전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춘화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조선조 후기이다.

조선시대 관리나 역관들이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몰래 갖고 들어온 것이 춘화의 주된 유통경로이다. 당시 북경 책방에서는 우리나라 사신들이 책을 고르는 척 하면서 미적미적 시간을 때우면 은밀히 소맷자락을 끌어당겨 깊숙이 보관하고 있던 춘화를 내밀었다고 한다.

이렇듯 가져온 춘화는 사대부를 포함한 양반 사회에 빠른 속도로 널리 퍼졌고, 그 영향으로 화가들이 춘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춘화가 매우 음란하고 지저분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겠으나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춘화 안에는 그 당시 조선후기의 여러 가지 풍속과 정서, 사상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짧은 날을 재현해 보려 노력하는 노부부의 몸짓, 집주인과 하인의 사랑을 훑쳐보는 하녀의 호기심 어린 얼굴, 그리고 사랑방 땃돌에 놓여있는 남녀의 신발 두 켤레 등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진솔함과 낭만, 해학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의 다양한 생활상을 생생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춘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 역사의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양반들이 춘화도를 보며 무료한 생활을 견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당시 그 그림들을 눈앞에서 벌어지는 정사를 보고 그렸거나 자신의 성행위를 상상하며 그린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중국, 일본 등에서 들어온 춘화도를 교묘히 각색하여 우리나라의 정서와 배경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춘화의 적나라한 장면은 단순히 도색적인 성희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해학적이면서 낭만이 흐르고 가식 없는 표현들로 감칠맛 나는 인간사의 하나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춘화의 성격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춘화의 어디에도 변태적이거나 부조화적인 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성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로 해석된다.

성에 관한 한국문화의 폐쇄적 성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춘화는 호사가의 안방, 박물관의 서가, 고미술품을 취급하는 화랑의 서랍 속에 숨겨져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춘화는 음란물과는 거리가 멀다. 노골적이고 쾌락적인 성애장면을 담고 있으면서도 풍경이나 실내 장식품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단순한 성 유희를 넘어서 예술성을 지닌 성풍속도로 그려진 것이다.

인간의 성을 자연과 결합시킴으로써 외설적인 주제를 예술로 승화 시켰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만한 역사적 미적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조선후기 춘화를 그린 대표적인 작가로는 조선풍속화의 거장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 그리고 현대의 뛰어난 인물화가 정재 최우석(1899~1965)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작품 중 현재 발견된 것 중에서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춘화는 단원 김홍도의 것으로 전하는 〈운우도첩(雲雨圖帖)〉이다.

단원의 도인이 적혀있는 〈운우도첩〉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분첩 되어 일부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아직 반수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열세 폭의 그림들으로써도 충분히 단원 시대의 조선 춘화 양식을 고찰할 수 있다.

반면 혜원의 낙관이 적혀있는 〈건곤일회도첩(乾坤一會圖帖)〉은 단원의 화첩에 비해 회화적 밀도가 부족하고 도상도 성행위 위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운우도첩〉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성격묘사나 주변景物 묘사가 풍속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운우도첩〉이 띠고 있는 자연관이나 음양사상은 현전하게 삭감되어 있다.

후대에 그려진 춘화 중에서 작가가 분명하고 수준도 비교적 높은 춘화첩은 단연 정재 최우석의 〈운우도첩〉이다.

온전하게 보존된 이 춘화첩은 비단에 수묵담채로 그려졌으며 매우 섬세하게 그려진 화첩이다. 24폭으로 된 정재의 춘화첩은 아마도 전혀 내려오는 춘화의 도상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앞의 두 화책에 나오는 도상과 유사한 장면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작가에 의해 일부 변형되고 각색되었지만 다양한 춘화의 도상들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이들의 춘화첩이 책으로 출간되어 세상에 나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종류도 많지 않다.

태백출판사가 1993년에 〈한국의 성(韓國의 性)〉이라



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내용 중에 한국의 춘화도를 다루었고 도서출판 에이앤에이가 발간한 <한국의 춘화>는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 그리고 정재 최우석의 성 풍속 그림을 한자리에 모은 최초의 춘화집이다. 고작 이런 정도의 출판물이었다.

이처럼 출판물이 적은 이유는 춘화가 미술사적으로 뚜렷한 회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음란물로 간주되어 금기시 또는 소외되어 왔다.

그것은 춘화의 내용이 성희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폐쇄적 성향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시대에 와서 까지도 소장자들이 장롱 속 깊이 감추어두고 좀처럼 내놓지 않고 있었다.

이렇듯 춘화는 연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감추어지거나 소실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춘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욕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19세기 춘화는 당시 사회의 적당한 낭만과 적당한 퇴폐가 맞물린 자유분방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상업도시 발달 등 그 무렵 싹트기 시작한 자본주의적 사회변화를 반영한 미술 장르인 셈이다.

당시의 춘화는 사랑방, 대청마루, 우물가, 들녘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있다.

춘화는 그러나 노골적인 성적묘사에 그치지 않고 사

람 살아가는 모습, 즉 인간사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그간 성에 관한 작품들은 외설이라는 누명을 쓰고 통제 아닌 통제가 되기도 했다.

수치심 때문인 것인지 내면깊이 담아두고 정녕(情念)이 아닌 정념(正念)으로 종교적 성격에 성(性)만이 존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숨겨두면 숨겨둘수록 비밀을 캐내려는 집요함과 본능의 욕구는 더욱 강해지는 법이다.

이제 인간의 끊임없는 호기심 그것을 향해 조심스레 질문을 던지고 귀를 기울이는 대담한 성에대한 이야기가 시대적 흐름을 타고 에로틱아트로의 자리 잡음이 시도되고 있다.

화정박물관의 <LUST>전을 계기로 대중은 물론 학계에서도 춘화를 통한 에로틱아트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리라 기대해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음의 욕구는 여전하다. 어쩌면 춘화의 역사는 관음의 기록이라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투규주인(偷窺主人)이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는 주인을 몰래 엿본다는 뜻이다.

만약 주인이 성희를 벌이고 있다면 이것을 보는 사람은 요즘 정신의학계에서 쓰는 관음증 환자와 비슷할 수 있다.

혜원 신윤복이 그린 풍속화중 남녀가 정사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몰래 훑쳐보는 하녀처럼, 비록 인쇄된 것이지만 춘화가 나오는 책을 한권사서 몰래 들쳐보는 관음증 환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이제는 고급한류로 블루오션 개척을



무릇 세상의 이치가 풍성해지면 보다 나은 것을 찾게 된다. 대중문화 한류가 시장 논리 면에서 거대한 수효를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동남아'라는 한계 시장에서 맴돌고 있다. 10대 청소년과 드라마 청중들로 채워진 시장에서 벗어나 유럽시장을 공략하려면 현재의 상품으로는 접근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은 동유럽과 서유럽에서도조차 서로의 문화적 자존심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자신들이 접하지 않은 동양의 문화가 이곳 상류 사회로 쉽게



짓어 들 수 없음은 당연하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현지 상황에 너무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장벽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떠한 경우든 상대 문화를 만나려면 우선 정확히 상대를 알아야 하고 존중하면서 대화가 시작된다. 우리 것이 소중하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것만 이야기해서는 좋은 대화법이 못 된다.

그 예로 우리의 사물놀이가 좋다고 이를 그대로 유럽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면 역기능이 일어난다. 외국 극장들이 섬세한 음향과 외국인의 귀

가 우리 사물놀이 사운드에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몇 해 전 이탈리아에서 우리 대사관의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이곳 대사가 사물놀이 공연으로 관객들이 구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발 좀 자제해 달라고 했다. 또 하나, 국가브랜드다 어쩐다 해서 설익은 공연물들이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사례다. 극장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 현지에선 절대로 쉽게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기에 이들과 서로 맞추는 것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주로 한인 교회나 종교 단체와 연계해 장소만 있으면 우리 교포 대상의 공연을 하고 버젓이 언론에서 과포장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왜 고급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그 첫째는 동남아 시장의 한계성 극복이고 다음은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그 이미지 상승으로 수출이 이어져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류사회로 파고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엔 그토록 좋은 된장과 젓갈 김치가 이들의 입맛에 맞겠는가.

우리 입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쪽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구나 그 나라마다 소중한 전통과 민속이 있다.

그렇지만 현대에 사는 오늘의 사람에게 과거의 전통만을 강요할 순 없다. 문화가 차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안방 드라마가 국민의 최고 선호품이지만 이들은 오페라나 발레의 극장 문화를 최고로 여긴다. 동유럽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택시 기사도 퇴근하여서는 정장을 하고 오페라, 발레를 관람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오페라가 몇 편이나 있는가. 유럽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있는가. 미안하지만 현재로서는 답을 하기가 어렵다. 빈의 슈타츠오페(오페



라극장)에 연중 오페라가 열리고 늘 관객이 만석을 이루지만 우리에게 한 해에 오페라 한편 볼 수 없는 지역이 너무 많다. 이들의 문화 문법 구조에 맞는 양식화로 새 것을 만들어 소통해야 해외 시장에 팔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국악관현악으로 된 작품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가 없다. 그들이 우리 국악기를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곡으로 만든다면 '아리랑 교향곡'이나 '교향시 한강', 백두산 서곡'을 만들면 세계 오케스트라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다.

지구상에 오케스트라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의 빛나는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급 요리사가 얼마나 있을까.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원은 또 어떤 정보와 시각을 가지



고 있을까.

고급 한류상품을 만들려면 만드는 사람부터가 필수적으로 고급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있을 때 그들도 시장을 열 것이다. 지금 선조들이 물려준 불고기, 김치, 비빔밥이 미국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 관심을 끌면서 부상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해 김치, 된장, 막걸리, 불고기송의 음식 노래들을 만들었다. 아울러 단군 이래 최대 브랜드인 아리랑 라벨의 오케스트라도 창단했다.

우선 내일을 열어갈 청소년들이 세계 문화에
눈을 떠야하는데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가.
특히 지역을 보면 공연장은 있으되
공연이 없어 마치 논, 밭에 작물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을씨년스럽고 안타까운 풍경이다.
그간 우리가 성장에 바빠서 그럴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발상을 달리해야 할 때가 왔다.
고부가가치의 블루오션 시장에
고급한류가 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 작곡가의 우수한 작품을 실어 콘서트
 홀에서 연주하면서 리셉션에선 우리 음식을 선보
 인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콘서트나 오페라
 극장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면 그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겠는가. 이제는
 양에서 질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유럽의 뿌리 깊은 전통에서 보면 우리 것을 선보
 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에 단단히 준비하고 만
 들어야 한다.

우선 내일을 열어갈 청소년들이 세계 문화에 눈을
 떠야하는데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가. 특히 지
 역을 보면 공연장은 있으되 공연이 없어 마치 논,
 밭에 작물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을씨년스럽
 고 안타까운 풍경이다.

그간 우리가 성장에 바빠서 그럴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발상을 달리해야 할 때가 왔다. 고부가가
 치의 블루오션 시장에 고급한류가 나가야 한다.



서구사회에 코리아의 멋과 신명을 잘 보여 줄 때
 가 왔다. 그들도 동양의 문화를 고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탁계석
 한류문화산업정책위원장
 예술비평가협회장

한옥의 세계화와 고택문화자원의 활용



주거문화는 생활양식의 중심에 있으며

주거지의 자연환경 및 자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한옥의 양식을 그대로 수출하거나

전파하기 보다는 한옥이 가진 자연과 조화하며

지형에 따라 건축하는 풍수와 차경산수의 지혜,

자연 친화적인 소재, 창호를 비롯한 목재를 활용한

아름다운 실내 인테리어 등 세계인이 공감할만한

콘텐츠로 재구성해야한다.

요즘 웰빙 열풍과 함께 우리의 전통 한옥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친환경적인 소재로 건축하고 요즘 부모들의 골칫거리인 자녀들의 '아토피 및 건선에 좋다'는 인식이 높아가고 처마 선의 아름다움과 건물의 목구조와 창호 등이 그 미학적 가치가 재평가 받으며 한옥은 불편하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인식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해 전북 전주시, 전라남도 등이 전통한옥 보존 및 한옥마을 조성에 나서고 LH공사 등에서도 새로 조성하는 대단위 주택단지에 한옥의 장점을 도입하는 등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이후 명맥이 끊겼던 한옥이 새롭게 조명을 받으며 각지에 한옥학교가 들어서고 한옥목수 양성과정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등 한옥산업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

문광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한스타일 6대 과제에도 한옥이 포함 되는 등 한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고조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옥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북촌의 한옥마을이나 안동의 하회마을이 주는 고졸함과 아름다움이 관광자원으로서 성공했다지만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은 우리시대의 생활환경과 편리함을 담아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한다.



이를 위해 수납공간의 부족, 주방 및 욕실의 현대화 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고 한집 한집마다 주인의 철학이 반영된 개성 있는 한옥이 출현한다면 웰빙을 넘어 로하스적 삶을 추구하며 'Slow Life - Slow City'를 지향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거문화는 생활양식의 중심에 있으며 주거지의 자연환경 및 자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한옥의 양식을 그대로 수출하거나 전파하기 보다는 한옥이 가진 자연과 조화하며 지형에 따라 건축하는 풍수와 차경산수의 지혜, 자연 친화적인 소재, 창호를 비롯한 목재를 활용한 아름다운 실내 인테리어 등 세계인이 공감할만한 콘텐츠로 재구성해야한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그동안 한옥은 산업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정책적으로나 수요측면에서 도태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예산의 부족도 원인이지만 시대 변화를 한옥이 수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한옥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건축가, 문화인류학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목수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한다. 자재와 규격의 표준화, 도시형 한옥의 표준설계 안의 마련, 공동주택으로서의 한옥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표준 설계 안 개발,

한옥 건축인력 양성 수급계획과 건축비 절감방안 등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옥문화가 한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옥을 현대화 세계화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기존의 한옥문화 즉 고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란 과거와 현대의 대화 속에서 미래를 열어갈 때 큰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영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동안 한옥은 우리의 주거문화가 급속도로 바뀌는 가운데 정체되고 소외되었다. 문화재 지정된 고택에 대한 유지보수 위주의 한옥 보존대책은 지난 1990년대 들어 한국문화 100대 상징에 포함된 후 한브랜드 6대과제(한브랜드는 한스타일을 거쳐 한국스타일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에 포함되며 때마침 서울시의 북촌한옥마을 보존대책 및 각 지자체의 전통문화보존대책에 힘입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예산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활용보다는 보존관리에 치중하며 답보상태를 유지하다 민간차원에서 한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고택문화재 소유자들 또한 사단법인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한옥 펜션, 한옥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 다양한 한옥 숙박시설이 늘어나며 한옥체험업협회도 만들어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한옥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관심을 갖고 '한옥에서의 하루'라는 통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고택의 활용 정도는 화회마을이나 양동마을처럼 단체관광객들이 들리는 투어코스 내지는 한옥숙박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고택을 단순히 한옥체험의 공간으로만 보는 것은 고택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현존하는 고택의 대부분은 종가문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즉 고택이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유교문화, 가족문화의 전승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고택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체험이 아니라 고택이라는 공간에 담긴 역사와 문화



를 체험하는 진일보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체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고택과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택이 우리 전통문화 계승의 거점으로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택 소유주, 문화재청, 지자체,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참여와 역할분담 그리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고택이 가진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체류형의 고품격 문화체험 상품의 개발이 좀 더 효과적이며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관광 상품처럼 스쳐지나가는 시간에 즐기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고 체험하며 느끼고 감동하는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택 소유주는 주방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과 고택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 마인드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고택에 전하는 역사와 전통을 스토리텔링으로 정리 해야겠다.

문화재청과 해당지자체 역시 예산 확보를 통한 유지보수 지원 확대와 비현실적인 규제위주의 관리를 현실적이며 탄력적으로 바꾸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런 하드웨어적 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고택을 지역 전통문화와 한스타일의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인류



학, 민속학 등 전문가들의 기본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선행되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원과 예총 등이 결합하여 지역의 민속 및 예술, 전통혼례와 성년례, 향음주례 및 전통예절 등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토음식과 종가 음식 체험, 천연염색 및 공예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 경북도와 경북여성발전연구원이 개최한 종가 포럼처럼 고택에 전하는 음식의 보존과 표준화를 통한 상품개발과 문장 및 인장디자인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고택문화콘텐츠의 개발 또한 다

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1사1문화재' 처럼 '1사1고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은 고택 보존 및 운영을 지원하고 고택을 직원 및 직원자녀 인성교육 및 문화체험의 장소로 활용한다면 고택 소유자의 큰 짐을 덜어주는 동시에 상생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기업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한옥의 대중화와 세계화라는 기회를 통해 고택 또한 은둔이 시간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장에 당당히 주연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문 관광객 수와 입장료에 집착하는 단기적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고택은 박물관이나 민속촌이 아닌 종손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과거에 머무는 공간이 아닌 현재와 미래가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덕택 한류문화산업포럼 사무총장

한국음식이 세계화하려면 한식과 막걸리 소고



올해 초 〈식객: 김치 전쟁〉이란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장면 중,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상은 오랜 시간 한국 음식을 맛보지 못한 한국 대통령을 위해 김치와 불고기를 내놓는다.

한국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독특한 맛이라는 찬사가 나오자 일본 수상이 하는 말: “일본의 기무치와 야끼 니꾸입니다. 입맛에 맞으셨으니 다행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대통령은 김치의 세계화 필요성을 느껴 김치 경연대회를 열었다.

실제로 한식세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음식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음식에 철학이 깃들어있으며 대부분의 음식이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음식의 유래나 양념, 조리법 등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음식은 배만 부르게 할뿐 아니라 가슴과 머리에도 저장된다.

생각을 하지 않고 허겁지겁 집어넣는 음식은 ‘사료’와 다를 것이 없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한국이란 나라를 기억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을 자아내도록 할 때, 한국 음식은 세계화에 성공하는 것이다.

서양에서 고기를 굽는 강도가 서너 가지 정도인데 반해, 우리는 숯불의 강도와 잿불의 옅고 두터움, 화기의 쪼임 거리, 석쇠의 열전도를 등에 따라 방·의·오·회·삼·식·홍·단·염·설·암·날 등 15가지의 구이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뿐 만이 아니다.

쇠고기 하나로 다양한 맛을 내는데 있어 서양에는 35가지 정도인데 반해 한국은 무려 120여 가지나 가지고 있으며, 김치 종류도 140여 가지나 된다.

이처럼 한국의 음식문화는 다양하면서도 약식동원(藥食同原), 음식궁합(飲食宮合), 맛과 영양 뿐 아니

라 철학이 담긴 음식, 웰빙 건강식, 오색과 오미의 조화, 오장육부의 조화를 중시하는 음식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마케팅 한다면 세계에 찬사 받는 훌륭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막걸리 열풍에 힘입어 많은 국민이 막걸리에 관심을 갖고 세계화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독일의 맥주, 프랑스의 와인, 중국의 바이주(白酒), 일본의 사케가 각각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듯이 막걸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술로 부족함이 없다.

김치와 비빔밥, 불고기 등 한국음식이 점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도 일본에서 사랑 받는다니 반가웠다.

일본 출장 중 저녁 식사를 위해 들렀던 신주쿠의 음식점에는 일본산 〈동경 막걸리〉를 팔고 있었다. 일본쌀과 누룩으로 빚은 막걸리였다. 김치와 막걸리, 그리고 불고기는 일본에 소개된 한국 음식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그 중 막걸리가 건강에 좋은 술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최근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일본 여성들은 막걸리로 다양한 칵테일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막걸리의 명칭은 한글 ‘막걸리’로 표기되어야 하며, 영문 명칭도 차체에 표준을 정해야 한다. Makgeolli(맥걸리)나 Maccori(마코리)로 표기하는 것보다 Markgolly(마크폴리)라고 표기하고 읽는 것이 외국인의 발음상 막걸리에 가장 유사하게 들린다고 한다.

막걸리 잔, 용기, 상표의 표준화도 시급하다. 신맛, 단맛, 쓴맛, 향과 도수의 표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취향에 맞는





막걸리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맥주처럼 곡류를 발효했으므로 서양인에게는 '라이스 와인' 보다는 '라이스 비어' 로 추천하는 게 더 어울린다.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막걸리를 소개할 때 '라이스 넥타' (nectar)라고 하면 마케팅 차원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일본인들은 막걸리를 음료수와 술의 중간쯤으로 생각하고 즐긴다. 고대 그리스 신들이 마셨던 음료인 넥타처럼 신비감 있고, 건강에 좋은 웰빙 술이란 이미지도 함유하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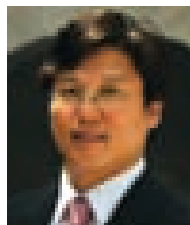
독일에는 마을마다 가문마다 소재하는 6천 종류의 맥주가 있다. 우리도 과거 수만 개의 주막에서 만들어 내던 마을 특유의 '테루아' 막걸리가 있었다.

금수강산 고을마다 조금씩 다른 기후와 토양에서 생산된 쌀과 깊은 샘물로 빚은 다양한 막걸리의 주변을 확보해야 한다. 막걸리에 걸맞은 안주도 개발하고 중소 막걸리 제조업체의 유통을 획기적으로 진작할 수 있는 '막걸리 타운'을 주요 도시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막 시작된 막걸리의 세계화는 단숨에 이룰 수

는 없다. 외국인이 수궁할 수 있는 명칭의 정비부터 시작해 막걸리의 제조, 보관, 유통, 마케팅에 이르는 제반 사항을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막걸리를 우리가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외국인도 따라온다. 탄탄한 내수 기반을 갖추고서야 세계인의 술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음식과 막걸리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엄마의 정성이 깃든 음식에다가 스토리가 담긴 음식, 게다가 웰빙 음식인 한국 음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돋우고 식탁을 풍성하게 하며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훌륭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해 본다.



신승일

한류문화산업포럼회장, 한류전략연구소장

청원문화원 | 청소년 도의교실 문화학교 캠프



청원문화원(원장 배금일)은 '청소년 도의교실 문화학교 캠프'를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에서 11월 17일~12월 2일까지 4기에 걸쳐 1박 2일 과정으로 관내

8개 중학교 1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문경문화원 | UCC로 문경을 홍보한다

해보라향토사문화학교 수료식_ '2010 문화학교종합발표전시회'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과 해보라학교(교장 명은주)는 12월 2일 '향토사대중화사업-해보라향토사문화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30명의

중고교생들이 문경지역의 문화재들을 UCC로 제작하여 사이버 상에 올려 문경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다음날인 12월 3일, 영강문화센터에서는 <꿈꾸는 사람들, 아름다운 이야기> '2010 문화학교종합발표전시회'가 신한국 문경시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성남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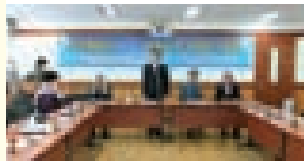
제15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졸업 발표회
제8차 향토유적지순례- 문화와 역사 속으로의 여행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 제15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졸업 작품 발표회가 12월 3일 10시 30분, 문화원 3층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성남문화학교는 1996년 이후로 2,500여명의 문화 지

도자를 양성해 왔다. 한편, 12월 7일에는 40여명의 성남시민과 함께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 원주 역사박물관 등 원주 지역의 문화유적을 답사하였다.

포천문화원 | 지역문화 창달의 중심이 된 포천문화원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신뢰와 주목을 받으며 포천 문화창달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12월 5일, 다문화어울림 여

성합창단'의 '2010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나눔' 개막식 행사초청공연. 12월 8일, '문화인의 밤 행사' 개최 및 제1회 자랑스러운 문화인상(수상자 최종규 초대 원장시상, 12월 16일, 어르신 문화학교 '추억의 실버악단' 수료식, 12월 22일 향토사연구위원 간담회 개최, 12월 23일 '좋은책 읽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등 연말에 지역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거창문화원 |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 행사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은 거창문화유적 바로 알기, 거창문화 역사 알기 체험행사, 알기 쉬운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 등의 행사를 가졌다. 알기 쉬운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은 지난 11월 '1도시 1특

성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군내 초·중 고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지난 11월 12일과 12월 3일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일환으로 군부대 장병들과 귀농 가족들을 대상으로 거창 문화 역사 알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11월 30일에는 '거창 문화유적 바로알기' 순회강좌에서 경료호진 모범 청소년 표창자와 제14회 거창역사 출발 동서남북 퀴즈대회 입상자 26명이 참가하여 관내 유적지를 답사했다.

서울 강동문화원 | 제6기 강동문화대학 수료식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의 제6기 강동문화대학이 12월 8일 수료식을 가졌다. 강동문화대학 1~5기까지 회장단이 참석해 83여명 수료생들을 축하해주었다. 제6기 수강생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상식과 인간미를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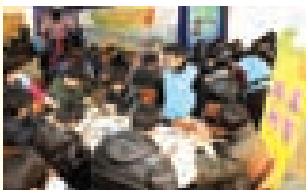
평창문화원 | 지역문화보존과 자원화를 위한 워크숍

평창문화원(원장 고창식)은 11월 23일 봉평 한화리조트에서 평창문화원 전통문화보존위원 및 회원들과 관내의 새 농촌 건설의 주역인 우수마을회장 및 사무국장 120명 등 200여 명이 모여 평창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각계의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사레발표로 문화를 통한 새농촌 건설을 동추진사례, 마을을 통한 마을 축제 추진사례, 전통문화 발굴·보존사례 등 다뤄 저녁시간이 되도록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천문화원 | 2010 한마음 송년음악회

동양천문화원은 12월21일(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양천구민들과 함께하는 한마음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여 초대가수들의 공연으로 모처럼의 가족나들이에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였다.

평택문화원 | 평택 어르신들 '청계천을 접수하다!' '장승과 솟대' 프로그램 무료체험



평택문화원(원장 오용원)의 어르신문화학교 '장승과 솟대' 체험 프로그램은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찾아가는 체험학습 '땀다!

장승과 솟대' 프로그램은 지난 14일과 18일에는 서울 청계천 생태체험장에서, 25일에는 수원화성 행궁에서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장승과 솟대 만들기를 체험한 시민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장승과 솟대를 미니언처로 만드는 것이 신기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기해주는 솟대이야기가 재미있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대덕문화원 | 다채로운 실버 프로그램 개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한다. 대덕문화원은 <실버극단 다솜바리>, <대덕문화 실버멘토>, <작은도서관 실버도우미>, <우리동네 문화재지킴이>, <장동공방>, <연속동 연마울>, <실버 오케스트라 은빛소리>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 24일에는 '은빛소리' 축하공연, 생애사 연극공연, 생애사 책자 발간 및 토크콘서트 오픈식이 열렸다. 그 중 다솜바리 어르신들의 '생애사 이야기'는 전쟁

이라는 고통의 시간과 기적적인 발전을 일군 대한민국 현대사가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험난한 세월을 건너 이제 서로 소중한 친구들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며 연극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동대문문화원 | 송년음악회_오페라 '바퀴달린 마술피리' 800여 관객 환호

동대문문화원(원장 김영섭)은 12월 23일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구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로 모짜르트 원작 가족오페라_ '바퀴달린 마술피리'를 공연했다. 관내주민 800여명이 대성황을 이룬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여 바퀴라는 매개를 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색한 작품으로 이미 전국의 크고 작은 공연장에서 수십여 차례의 공연에서 큰 호응을 받았으며, 작품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는 오페라 애호가 가 아니더라도 이미 키메라, 조수미 등에 의해 친숙하게 알려져 있다.

동래문화원 | 향토문화예술지 "동래문예" 발간

동래문화원(원장 성원주)은 12월 12일 '동래문예' 제11호를 펴냈다. 이번 발간된 '동래문예'는 동래예술인들의 문학 작품 등을 비롯하여, 제91주년 3.1독립만세운동 및 제16회 동래읍성역사축제 백일장에서 수상한 작품이 수록되었으며, 동래문화원 소식도 담겨 있다.

부산영도문화원 신설

2010년 10월 5일 부산 영도문화원이 개원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16-1번지, 051)403-1861

문화원 새얼굴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산시지회 | 사무처장 김용락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사무처장 최영주, 사무과장 김현수

김포문화원 | 사무국장 이명재

제천문화원 | 손용수 사무국장, 김은옥 간사

정읍문화원 | 이용찬

진주문화원 | 사무간사 김혜정 (사무차장 이주희 퇴직)

하동문화원 | 박성균 사무국장 (사무국장 신영수 퇴직)

한국문화원연합회 제1차 이사회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0년도 제 1차 이사회를 열고 2010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201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3호 안건으로 2009년 설립된 부산동구 및 부산서구문화원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원가입에 대한 의결사항을 다루었으며 이어 제49차 정기총회 개최의 건으로 1월 28일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직제를 개편, 사무국 운용 활성화 및 직원 업무능력을 강화하여 지방문화원 지원을 체계화 하고자 하는 사안 건의 의안을 심의 승인하고 기타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최중수 회장은 인사를 통해 작년 한 해 우리회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야기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 사업 등이 발표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력을 기울여 확보하여 지방문화원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최중수 회장 등 25 명이 참석했다.

2010 지방문화원 유공자 장관 표창

번호	시도	문화원	직위	성명	번호	시도	문화원	직위	성명
1	서울	용산	전 원장	박영희	11	전남	화순	전 원장	이수철
2		종량	전 원장	김 용	12	경북	고령	전 원장	최상호
3		동대문		김영섭	13		칠곡	전 원장	장영복
4	인천	서구	전 원장	정인표	14		봉화	전 원장	권정환
5	광주	서구	전 원장	김 중	15	경남	성주	원장	배춘석
6	경기	안성	전 원장	김태원	16		고성	전 원장	김권조
7		화성	전 원장	기봉서	17		강릉	사무국장	심오섭
8		광주	전 원장	이상복	18	전북	부안	사무국장	김경성
9	충남	논산	전 원장	박응진	19	경남	김해	실장	김경구
10	전남	보성	원장	정형철	20	전남	진해	직원	이은영

원 장 동 정 NEWS

신임 원장



서울 종로문화원장 심재득

임기 | 2010. 12. 26~2014. 12. 25
 (현) 능원실업(주)회장
 전서울시종로구의회 1대2대의원 역임
 (현) 파주시 향우회 회장 · (현) 종로문화원장



서울 동작문화원장 고후상

임기 | 2010. 12. 21~2014. 12. 20
 (전) 강남구 민주평통자문위원
 (전) 신호건설 회장 · (현) 삼승 회장



부산 영도문화원장 성한경

임기 | 2010. 6. 29~2014. 6. 29
 (주) 신한여객 회장 · 부산경영지총협회 회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산시지부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석탑산업훈장, 새마을훈장 근면장



인천중구문화원장 최춘자

임기 | 2011. 1. 1~2014. 12. 31
 한국꽃문화예술협회 이사장
 인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국제친선문화교류협회 부회장
 인천문화원 이사 · 인천 중구문화원 부원장



강원 춘천문화원장 원영환

임기 | 2010. 12. 30~2014. 12. 29
 (현) 강원향토문화연구회 회장
 현서울시사편찬위원회 고문
 (현) 의암학회 이사장, 회장 · (현) 춘천문화원 이사



경북 김천문화원장 정근재

임기 | 2011. 1. 1~2014. 12. 31(신임)
 김천신경정신병원 원장(의학박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경남 합천문화원장 차판암

임기 | 2010. 12. 17~2014. 12. 16
 경남중소기업청장 · 경남도민일보대표이사
 10대 합천문화원장 · 11대 합천문화원장(현)

퇴임 원장



서울 동작문화원장 이윤선

동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소장
 (전) 동작문화원 사무국장



인천중구문화원장 임태관

전 경기일보 국장
 전 인천문화원 임원
 화도진도서관 운영위원장



강원 춘천문화원장 이대근

강원도 강릉시장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경북 김천문화원장 송영호

경상북도 치과의사협회장
 송치과 원장(의학박사)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디딤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동부리 문화로 세상아나는 지역문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알립니다

지역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의 중심, 한국문화원연합회

더 한 곳까지, 더 깊은 곳까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함께 합니다.
지역문화, 동부리 문화로 통한 '문화 양동서기' 우리가 선도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